

# 저고리 원형제도의 비교고찰

— The Comparative Consideration on the Basic pattern of Geo-go-ri

조선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정옥임

Dept. of Home Economics, Chosun Univ.  
prof.: Chung Ok Im.

## 〈목 차〉

I. 서론	6. 저고리 참고치수의 비교
II. 본론	7. 참고치수에 의한 진동과 겹깃길이의 비교
1. 저고리 원형제도의 산출방법 비교	8. 산출식 진동값에 의한 겹깃길이와 실제 겹깃길이값의 비교
2. 고대나비와 깃나비의 관계	9. 안깃나비와 안깃길이의 비교
3. 소매부리 산출값과 손목둘레와의 차	III. 요약 및 결론
4. 섹나비와 깃나비의 관계	참고문헌
5. 실제길이와 투영길이의 차 - 앞치짐	

## 〈Abstract〉

We consider the irrational part of the basic pattern drafting of the Geo-Ko-ri so that we want to design it more scientifically. So there are problems which is found after we considered with comparison about the existingly basic pattern drafting of Geo-go-ri.

(1)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ractical drafting and Calculation.

(2) The part of the curved line was mad indistinctly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alculating expression and calculating value.

(4) There are some parts which lack objectivity about the reference size.

(5) The calculating method of Collar-width and Neck-Nidth are not formative and rational.

These are items that we must consider and study further. Especially if we can make up of the scientific form in consideration of the formativeness focused on "git", I think, it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not only the standardization of the basic pattern of Geo-go-ri and the use of the use of education but also the manufacture of individual clothing the production by Auto CAD.

## I. 서론

동서양의 문화가 교류됨으로써 생활감정과 美意識 역시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옷의 美的價値와 美的表現도 洋服의 美的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여져 전통적인 미의식과 동시에 서구적인 미적 원칙이 적용된 작품으로서의 韓國衣裳이 構想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1)</sup>

한복도 이제는 Auto CAD를 이용하여 原型을 자동으로 製圖하고 그레이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원형은 여러가지 製圖法 중에서 되도록 이해하기 쉬우면서 標準化를 위해서도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면 원형은 옷을 만드는 기본형으로 교육적으로 볼때 우선 과학적이어야 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하며 人體自體를 파악하여 치수의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設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教育用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가지 저고리 原型製圖法의 比較考察은 이미 이루어 졌어야 할 내용이었다. 특히 깃을 중심으로 한 각 부문과의 비교고찰은 저고리 전체의 構成을 이해하는데 핵심의 요소가 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깃은 저고리에서 여법의 역할을 하는 부위이면서 중심에 위치하여 의복의 均衡을 이루는 곳으로 裝飾의인 美를 표현하는 유일한 斜線이다.<sup>2)</sup> 동정과 더불어 미의 集點이 되기도 한 저고리 깃에 대한 연구에서는 목(頸)이 단연 인체의 주체적 部位인 동시에 衣服構成의 基準線으로서 중요하다.<sup>3)</sup>

시대와 유행에 따라 은폐와 노출의 대비에 의해 강조되는 깃을 본 연구에서는 다섯가지 저고리 원형 제도법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비교고찰해 보고자 한다.

비교고찰의 방법으로는 각각의 원형을 제시된 산출식에 의해 제도하고 다음에는 같은 조건 (동일치수) 하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도하여 저고리 원형제도의 산출방법 비교와 고대나비와 깃나비의 관계, 소매부리 산출값과 손목둘레와의 차, 섶나비와 깃나비의 상호관계, 실제길이와 투영길이의 차, 저고리 참고치수의 비교, 참고치수에 의한 진동과 걸것길이의

비교, 산출식진동값에 의한 걸것길이와 실제 걸것길이 값의 비교, 그리고 안깃나비와 안깃길이의 비교 등을 비교 고찰해 봄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저고리 제도법을 構案하는데 상호보완적 참고자료가 되어 원형설계의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덧붙여 밝혀두고자 한 것은 원형 비교시 측정값은 실물크기로 제도한 후 측정된 값이나 측정상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제도상 불명확하여 이해의 부족이 따르는 線의 처리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自意의 解釋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저고리 원형은 가장 일반적인 원형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참고치수의 표준화는 고려되지 않았다.

## II. 본론

### 1. 저고리 원형제도의 산출방법 비교

피부는 인체와 일체가 되어 공간을 이동하면서 피부과 인체와의 관계에 관한 여러가지 각도에서의 과학적인 연구와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특성, 피부모형 및 着裝에 관한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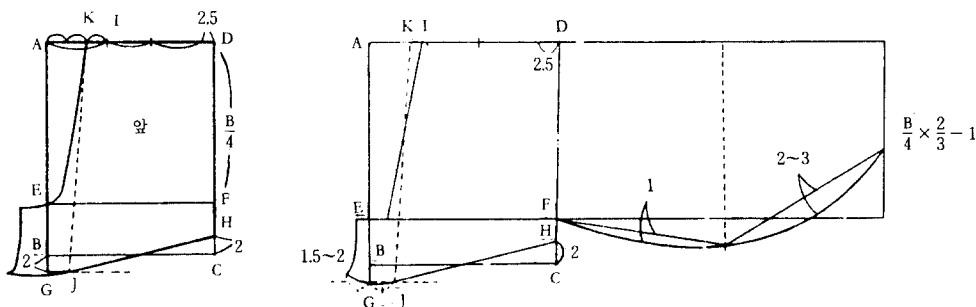
의복원형의 제작을 위해서는 먼저 인체 자체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계측후에 이를 기초로 한 의복원형의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sup>5)</sup> 그 결과 이상적인 의복원형은 설계시 인체 각부위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표 항목을 선정해야 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도법에서는 가슴둘레 만으로 거의 모든 項目을 산출하고 있어 인체부위와 피부간의 치수불일치를 낳게 하고 있다.<sup>6)</sup> 이러한 제도법을 胸度式,<sup>7)</sup> 長寸式<sup>8)</sup>이라고 하는데 극히 적은 부위의 치수, 즉 가슴둘레, 등길이, 소매길이 등을 착용자로부터 계측하여 주로 가슴둘레 치수를 바탕으로 타부위 치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가슴둘레와 그외의 부위치수(목둘레폭, 등넓이)와의 관계는 체형에 따라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으며 算出式에 의해 적합의 여부가 결정된다.<sup>9)</sup>

<그림 1>\*은 김분철<sup>10)</sup>의 저고리 원형제도법이고, <그림 2>\*는 임순영, 박경자<sup>11)</sup>, <그림 3>\*은 김분옥,<sup>12)</sup> <그림 4>\*는 이주원,<sup>13)</sup> <그림 5>는 조정희<sup>14)</sup>의 제도







a. 앞 길(前胸)

AB=DC.....길이

AD=EF..... $\frac{B}{4} + 2.5$ (뒷폼)

AE=DF..... $\frac{B}{4}$

H점.....C점에서 2~2.5cm 되는 곳

G점.....B점에서 1.5~2cm(앞처짐)

J점.....결섵 나비의  $\frac{1}{2}$ 되는 곳

I점..... $\frac{B}{4} \times \frac{1}{3}$ (고대)±1cm(적은 것에는 +, 큰 것에는 -)

K점.....I점에서  $\frac{1}{3}$ 되는 곳인데 이 곳을 기준으로 하고 싶을 만들어

세로 2등분하여 그 반은 등길선 안으로, 반은 밖으로 가도록

싶 위치를 정한다.

〈그림 3〉 김분옥의 저고리 원형제도

칠의 산출식만이 깃나비의 크기에 따라 고대나비가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고대 산출이 가슴둘레 만을 이용할 경우, 겹깃과 안깃의 겹침으로 생기는 앞목노출은 깃나비가 넓어짐에 따라 감소하게 되나 김분옥의 고대 산출은 가슴둘레 뿐 아니라 깃나비의 크기에 따라라도 增減이 될 수 있어 보다 합리적 구성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동일치수일 때의 깃나비 계산값을 비교해 보면 “박·임”과 “이”→김분옥→“조”의 순으로 고대 크기가 다르다.

김희정<sup>16)</sup>은 그의 연구에서 가슴둘레 만을 이용하여 고대 산출을 할 경우, 깃나비가 0.5cm씩 증가함에 따라 앞목의 노출 부위는 1cm씩 減小하고, 반면에 겹깃과 안깃의 겹침부위는 깃넓이가 0.5cm씩 증가함에 따라 1.5cm씩 증가한다고 하였다.

김분옥의 산출식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가슴둘레의 대소에 따라 역으로 고대나비가 줄어들게 되다가 기준치 이상부터 증가하나 큰것과 적은것의 사이에서는 적은 치수가 오히려 고대나비가 크게 되고 큰 치수가 적게되는 오류를 낳게 하고 있다.

3. 소매부리 산출값과 손목둘레와의 차

소매부리는 김분옥과 이주원, 조정희가 진동(B/4)의 3/5을, 박경자·임이 진동의 2/3, 김분옥은 진동의 2/3-1cm로 소매부리 크기를 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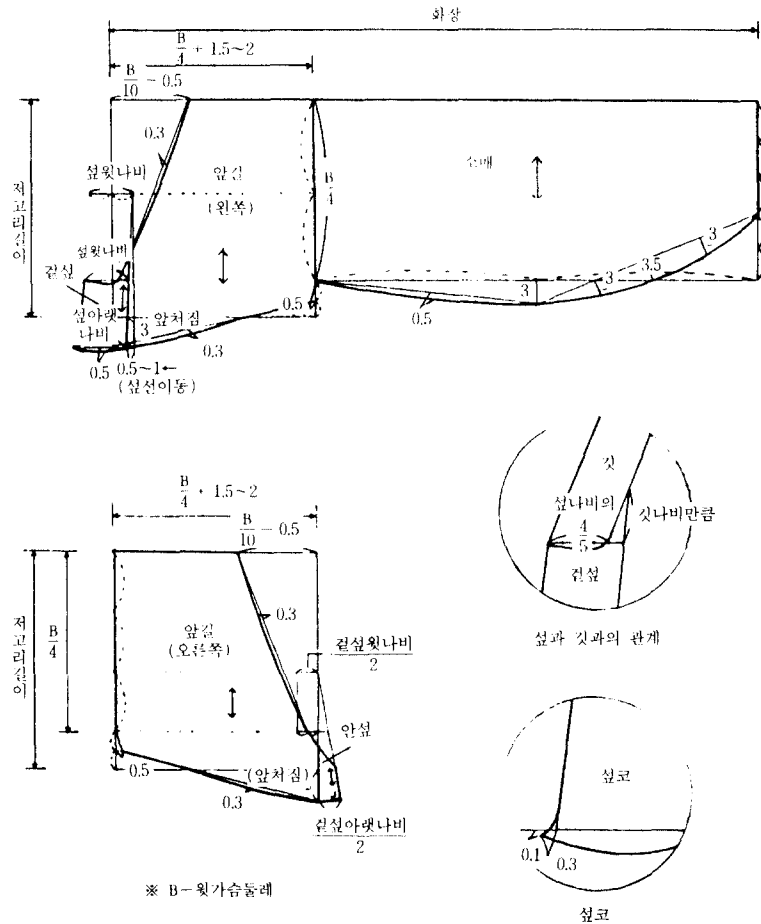
〈표 3〉은 이들의 差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슴둘레 85cm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해 본 것이다.

소매부리값이 큰것은 진동산출에 가슴둘레 치수가 아닌 팔둘레 치수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손목둘레와의 差가 14.96cm라면 소매부리가 기능성을 넘어선 크기가 아닌가 생각되나 이는 배래와의 조형성이 보다 배려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4. 섶나비와 깃나비의 관계

옷깃과 옷섶, 그리고 여밈은 복식의 系統 區別의 指標가 되며 복식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sup>17)</sup> 옷깃의 의미는 의복의 목둘레에 해당하는 부분의 명칭으로 양복의 Collar에 해당한다.<sup>18)</sup>

겹섶나비를 보면 섶길이의 1/2로 계산한 김분옥의



〈그림 4〉 이주원의 저고리 원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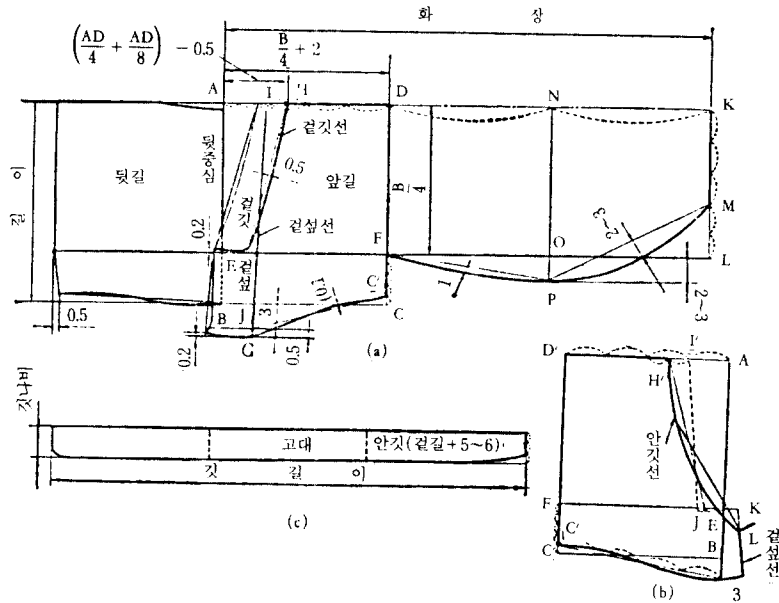
경우 저고리길이가 길어지면 설패길이가 길어지고, 따라서 겉설패나비가 커진다는 문제점 뿐만 아니라 깃나비도 그 만큼 커지게 되고 앞머미의 교차분이 많게 되어 앞쪽 노출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다. 반면에 “임·박”의 겉설패나비의 크기 결정에는 깃나비가 영향을 주게 되며, 김분옥과 “조”의 산출식에서는 가슴둘레 치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산출식이 아닌 치수로 제시하고 있어 깃을 중심으로 한 변화는 제한을 받게되어 깃나비에 미치는 영향 또는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런가 하면 뒤폭이나 고대의 크기에 따라 겉설패나비가 결정되

는 산출식은 결국 가슴둘레치수에 의해 겉설패나비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산출식은 설패의 나비가 고정될 수 밖에 없어 시대와 유행에 민감한 저고리의 디테일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설패나비에 있어서의 산출식은 다양하다. 설패나비를 이용하기도 하고 깃나비 또는 고대나비를 이용하여 넓이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조”는 안설패나비를 아예 제시하고 있는데 안설패나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겉설패나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김분칠”과 “이”이며, 깃나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람은 “임·박”, 그리고 가슴둘레가 안설패나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였다(김분옥).



〈그림 5〉 조정회의 저고리 원형제도

$$* AH \times \frac{3}{4} = I \text{ (선표선)}$$

$$\frac{A \cdot H}{2} = J \text{ (결선표선)}$$

안깃나비는 길깃과 안깃의 교차점(앞목노출각)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결론에서 제도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육적으로 이용될 때는 개개인의 체형에 따라 적용치수가 달라져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형설계에 보다 과학적 산출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5. 實際길이와 投影길이의 差 - 앞치짐

6. 저고리 참고치수의 비교

저고리에서 앞치짐 또는 앞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선표내림으로 이는 서양복 원형에서의 가슴 다이어트에 해당된다. 앞치짐이란 實際길이와 投影길이의 差<sup>19)</sup>가 인체의 曲面으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의복구성에서 볼 때는 가슴돌출로 인해 생기는 앞뒤 길이의 차로 설명할 수 있다. 즉 製圖상의 Bust line과 인체측상의 Bust line의 차는 앞뒤 길이의 水平 유지로 볼 때 제도상의 앞허리선 치짐분을 말하는 것인데, 김분옥 만이 2cm이고 나머지는 3cm로 하여 西洋服에서의 앞치짐분 3~3.5cm<sup>20)</sup>와 문화식 원형에서의 2~2.5cm<sup>21)</sup>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산출식이 다수의 평균을 이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교

〈표 4〉는 저고리 참고치수의 비교이다. 大, 中, 小의 치수사이에 級間差가 많은 것은 원형산출식이 다수의 치수에 적용하더라도 객관성이 있어 무리한 오차가 생기지 않는다면 표준치수가 아니더라도 제도나 제작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참고치수에 의해 한 예를 계산해 보면, 김분철은 가슴둘레 90cm, 깃길이 35cm, 선표나비 5cm, 선표길이 10cm의 大치수에 있어 결깃나비는 선표길이의 1/2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진동값은 22.5cm인데 35cm의 깃길이에서 진동값을 제하면 12.5cm가 된다. 여기에 앞치짐분 3cm를 더하면 15.5cm가 선표길이가 되고 이에대한 선표나비는 7.75cm이다. 참고치수와 선표나

〈표 1〉 저고리 원형제도의 산출방법 비교

(단위 : cm)

항목 구분	진 동	고대나비	소매부리	결섵나비	안섵나비	앞저집	섵길이	안깃나비	안깃꼭션 기준점	깃 길 이
김분칠	$\frac{B}{4}$	$\frac{B}{12} + \frac{\text{깃나비}}{4}$	진동의 $\frac{3}{5}$	섵길이 $\times \frac{1}{2}$	상 : $\frac{\text{섵나비}}{4}$ 하 : $\frac{\text{섵나비}}{2}$	3		깃나비의 $\frac{1}{2}$	안깃길이의 $\frac{1}{4}$	$\frac{B}{4}(\text{결깃}) + \text{고대나비} + \text{안깃}$
임순영 박경자	$\frac{A \cdot H}{2} + 1 \sim 2$	$\frac{B}{10} - 0.5$	진동의 $\frac{2}{3}$	깃나비 + 1 ~ 1.5	깃나비 - 1	3		깃나비의 $\frac{2}{3}$	결깃 + 깃나비 + 2의 $\frac{1}{3}$	$\frac{B}{4}(\text{결깃}) + (\frac{B}{10} - 0.5) \times 2 + (\text{결깃} + \text{깃나비} + 2)$
김분옥	$\frac{B}{4}$	$\frac{B}{4} \times \frac{1}{3} \pm 1$ ※적은자:(+) 큰 것:(-)	진동의 $\frac{2}{3} - 1$	뒤폭의 $\frac{1}{8}$	고대넓이의 $\frac{2}{3}$	2	저고리길이의 $\frac{1}{2}$	깃나비의 $\frac{2}{3}$	결깃 + 5 ※결섵아랫나비의 $\frac{2}{4}$ 의 $\frac{3}{3}$ 에서 직각인 점	$\frac{B}{4}(\text{결깃}) + (\frac{B}{4} \times \frac{1}{3}) + (\text{결깃} + 5\text{cm})$ 내외
이주원	$\frac{B}{4}$	$\frac{B}{10} - 0.5$	진동의 $\frac{3}{5}$	치수제시	$\frac{\text{결섵아랫나비}}{2}$	3		깃나비의 $\frac{2}{3}$	안깃 길이의 8 ~ 10	$\frac{B}{4}(\text{결깃}) + (\frac{B}{10} - 0.5) + \text{안깃}$
조정희	$\frac{B}{4}$	폭 $+ \frac{\text{폭}}{8} - 0.5$	진동의 $\frac{3}{5}$	고대의 $\frac{3}{4}$	3	3		깃나비의 $\frac{2}{3}$	안깃나비의 $\frac{2}{3}$ 점에서 착지점 제시한됨	$\frac{B}{4}(\text{결깃}) + \text{고대나비} + (\text{결깃} + 5 \sim 6)$



〈표 2〉 고대나비와 깃나비의 관계

(단위 : cm)

구분	깃나비 치수	82	85	88	고대 산출식	비 고
김 분 칠	3	7.58	7.83	8.08	$\frac{B}{12} + \frac{\text{깃나비}}{4}$	깃나비에 영향받음
	3.5	7.71	7.96	8.21		
	4	7.83	8.08	8.33		
	4.5	7.96	8.21	8.46		
임 순 영 박 경 자	3	7.7	8	8.3	$\frac{B}{10} - 0.5$	깃나비에 영향받지 않음
	3.5					
	4					
	4.5					
김 분 옥	3	7.83 (+1)	7.08±1	6.3 (-1)	$\frac{B}{4} \times \frac{1}{3} \pm 1$ ※적으면 + 크 면 -	치수의 대소간에 차 이가 커짐
	3.5					
	4					
	4.5					
이 주 원	3	7.7	8	8.3	$\frac{B}{10} - 0.5$	깃나비에 영향받지 않음
	3.5					
	4					
	4.5					
조 정 희	3	7.94	8.22	8.5	$(\frac{\text{폭}}{4} + \frac{\text{폭}}{8}) - 0.5$	깃나비에 영향받지 않음
	3.5					
	4					
	4.5					

비가 무려 2.25cm의 오차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깃나비 치수 5cm(大치수)에 걸썩 윗나비 치수 5cm는 깃나비와 썩나비를 같게 본 것으로 깃과 썩의 구성 관계상 객관성이 결여된 치수이다. 고대에서 썩으로 이어지는 깃의 각도에 의해 생기는 깃머리 치수가 배제된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썩은 깃보다 커야 한다.

실제로 깃나비와 걸썩나비의 관계는 상관이 크다. 그래서 깃나비가 먼저 결정된다면 깃나비에 의해 썩나비가 영향을 받게 되고 썩나비가 먼저 결정된 후라면 썩나비에 의해 깃나비가 영향을 받게 된다.

### 7. 참고치수에 의한 진동과 걸깃길이의 비교

〈표 5〉는 참고치수에 의한 진동과 걸깃길이의 비교이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한 것은 진동값 = 걸깃길이 값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체로 진동산출식에  $\frac{B}{4}$ 를 쓰고 있는데 “임·박”만이 팔둘레 치수( $\frac{A \cdot H}{2} + 1 \sim 2\text{cm}$ )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시된 참고치수를 계산해 보니 팔둘레 치수가 아닌 가슴둘레 치수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구성에서 진동 산출에 팔둘레 치수를 이용하게 되면  $\frac{B}{4}$ 로 계산된 걸깃길이는 진동길이 보다 짧아진다. 이에 대한 비교검증을 위해 〈표 6〉의 성인

〈표 3〉 소매부리 산출값과 손목둘레와의 차

(단위 : cm)

치수 항목 구분	가슴둘레 85cm일 때*					
	진동산출식	산출값	소매부리 산출식	산출값	손목둘레*	소매부리와 손목둘레의 차
김분칠	$\frac{B}{4}$	21.25	$\frac{B}{4} \times \frac{3}{5}$	12.75	15.5	10
임순영 박경자	$\frac{A \cdot H}{2} + 1 \sim 2$	22.85	$\frac{A \cdot H}{2} + (1 \sim 2) \times \frac{2}{3}$	15.23	15.5	14.96
김분옥	$\frac{B}{4}$	21.25	$\frac{B}{4} \times \frac{2}{3} - 1$	13.17	15.5	10.84
이주원	$\frac{B}{4}$	21.25	$\frac{B}{4} \times \frac{3}{5}$	12.75	15.5	10
조정희	$\frac{B}{4}$	21.25	$\frac{B}{4} \times \frac{3}{5}$	12.75	15.5	10

\* 〈표 5〉 참조

여자의 크기별 신체치수<sup>22)</sup>에서 “임·박”이 제시한 치수와 동일한 치수 82cm(가슴둘레)를 선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팔둘레값 41.2cm로 계산해 본 결과  $\frac{A \cdot H}{2} + 1 \sim 2$ cm의 진동길이 값은 21.6~22.6 이고,  $\frac{B}{4}$ 의 겹깃길이 계산값은 21.35cm로 최하 0.35cm~1.35cm까지의 誤差가 생기게 된다.

#### 8. 산출식 진동값에 의한 겹깃길이와 실제 겹깃길이 값의 비교

다음의 원형제도 〈그림 6,7,8,9,10〉은 겹깃길이 산출식의 오류를 검증하고자 〈표 5〉의 참고치수를 이용하여 똑같은 조건하에서 각자가 제시한 제도법으로 제도하여 비교한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겹깃길이의 산출값과 실제 겹깃길이의 값의 차를 알기 쉽게 만든 것이 〈표 7〉이다.

여기에서 보면 겹깃길이가 실제값과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게 되었다. 실제값과의 차를 보면 조정희 산출식으로는 0.55cm, 김분옥이 0.85cm, “임·박” 0.95cm, 김분칠과 이주원이 1.25cm까지의 오차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일조건(가슴둘레 85cm)이고 산출식이 같다고 하더라도 실제값과의 차이가 다른 것은 앞선에

연한 겹깃의 각도가 고대나비 산출식이나 섯 위치 결정 방법이 다른 원형설계 때문이라고 본다.

#### 9. 안깃나비와 안깃길이의 관계

안깃나비는 안깃 길이의 曲線 처리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안깃 곡선 기준선과 안깃 나비의 연결선은 안깃 길이가 길고 짧음에 영향을 받는데 실제로는 저고리 원형제도에서 이 점이 불명확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조”는 갓나비 점에서 곡선을 이루는 연결점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또한 안깃나비는 안깃 곡선基準點과 관계가 깊은데도 산출식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산출식이 더 타당하는가를 말하기 전에 우선 안깃과 겹깃의 교차로 인해 생기는 여밈분(겹깃과 안깃의 관계)과 안깃길이의 구성의 합리성, 조형성이 원형설계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여기에 나타난 겹깃이에 대한 산출식을 보면 겹깃의 길이를 진동의 산출식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또 안깃 길이의 기준이 되는 산출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김분칠, 이주원), 계산식에서 “이”는 고대나비를  $(\frac{B}{10} - 0.5\text{cm}) \times 2$ 가 아닌  $\frac{B}{10} - 0.5\text{cm}$ 로 제시

〈표 4〉 저고리 참고치수의 비교

(단위 : cm)

구분 항목	치수	김 분 칠		임 순 영 박 경 자	김 분 옥	이 주 원	조 정 희
		가슴둘레	대	90	90	88	88
	중	86	86	84	84	85	
	소	80	82	80	80	80	
길 길 이	대	35	25	28	26	25	
	중	28	24	25	25	24	
	소	26	23	24	24	22	
깃 나 비	대	5	3.5	4.5	4.2	3.5	
	중	4	3.3	4	4.0	3.3	
	소	3.5	3.2	3.5	3.8	3.2	
동 정 나 비	대	2	※깃나비의 $\frac{2}{5}$ 1.4		1.0~1.2		
	중	1.3	1.32				
	소	1	1.28				
길 섶 나 비	대	상	5	깃나비 +1~1.5	5.5		
		하	5.5				
	중	상	4.5		5		
		하	5				
	소	상	4		4.5		
		하	4.5				

〈표 5〉 진동과 겹깃길이의 비교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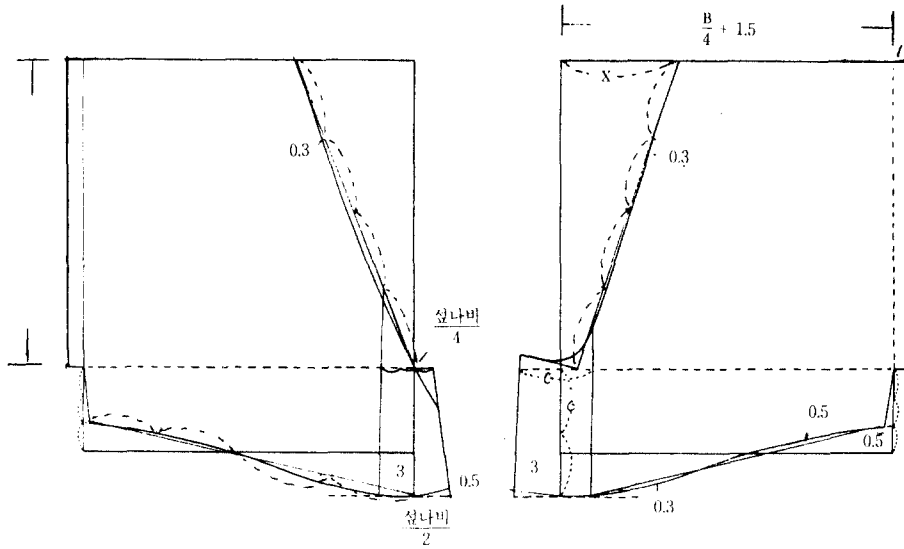
구분 항목	김 분 칠		임순영 · 박경자	김 분 옥	이 주 원	조 정 희
	진 동	$\frac{B}{4}$		$\frac{A \cdot H}{2} + 1 \sim 2$	$\frac{B}{4}$	$\frac{B}{4}$
가슴둘레	대	90	90	88	88	90
	중	86	86	84	84	85
	소	80	82	80	80	80
겹깃길이	대	22.5	22.5	22	22	25
	중	21	21.5	21	21	23
	소	19	20.5	20	20	21.5

〈표 6〉 성인여자의 크기별 신체치수

(단위 : cm)

항목 치수	가슴둘레	등길이	A·H길이	소매길이	목둘레	손목둘레
대	82	35	41.2	49	38	14.5
중	85	36	42.7	51	40	15.5
소	88	37	44.2	53	40	16.5

(자료 : 산업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체위조사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980. 6.)



〈그림 6〉 김분철의 저고리 원형

하여 객관성의 결여를 낳고 있다.

### Ⅲ. 요약 및 결론

이상의 저고리 원형제도의 비교고찰에서 제도상의 비합리적 부분과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들여보면 다음과 같다.〈표 8〉

이 연구를 토대로 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 저고리원형을 제시해 보면 〈그림 11〉, 〈그림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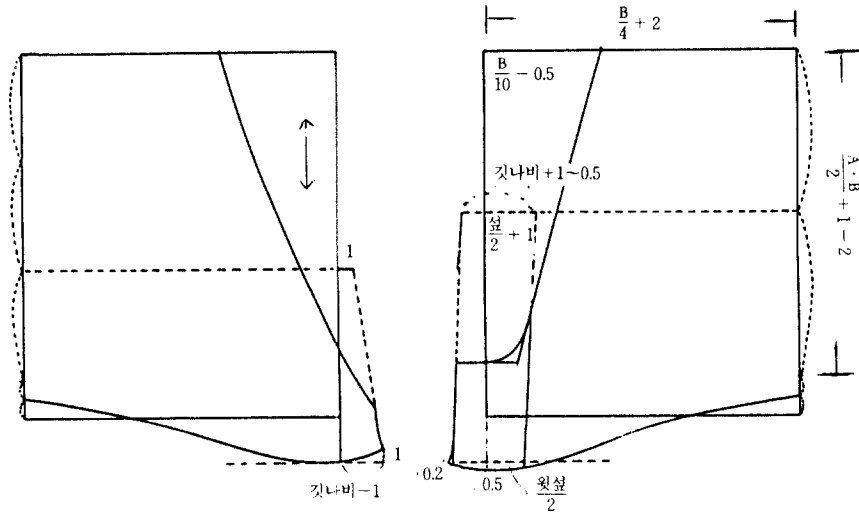
〈그림 11〉은 깃넓이 3cm를 기준으로 제도한 원형으로 깃길이를 펼쳤을 때의 모양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는 깃을 변화시켰을 때의 깃나비와 결선폰, 안선폰의 관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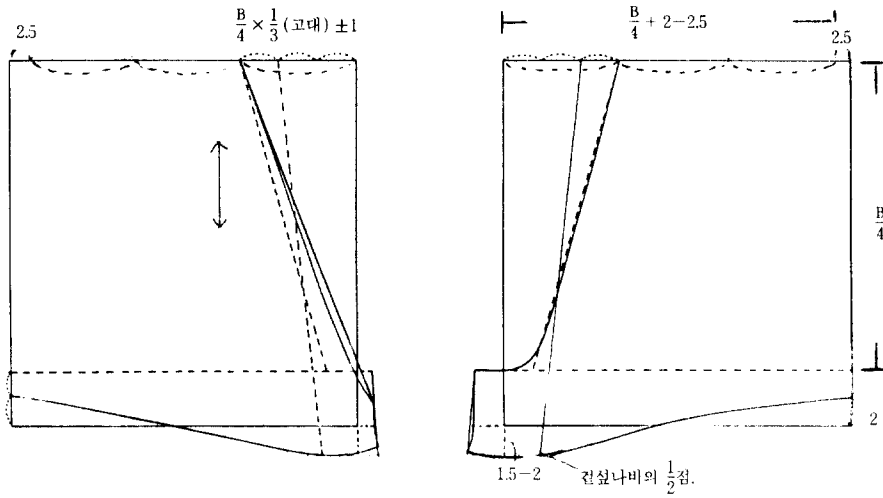
기존의 제도법에서는 깃이 넓어지면 앞목 노출이 줄어들고 동시에 앞여밈부분이 많아지고 깃길이 계산이 애매모호하였던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만든 저고리제도법이 〈그림 11〉과 〈그림 12〉이다.

이 제도법의 장점은 제도 자체가 곧 완성되었을 때의 모양이며 깃길이를 바로 알 수 있고 깃나비가 넓어지더라도 앞목 노출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으며 깃에 의해 섣나비가 바로 결정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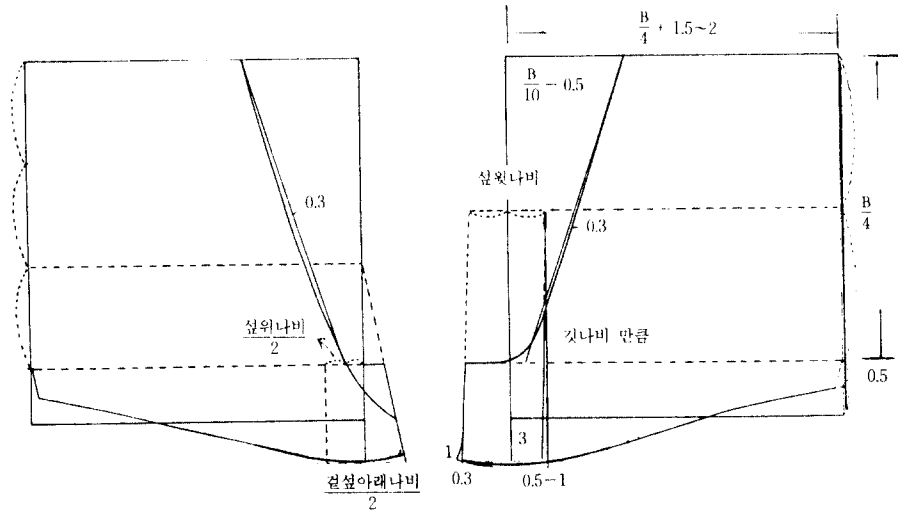
이상으로 저고리 원형제도의 비교고찰을 통해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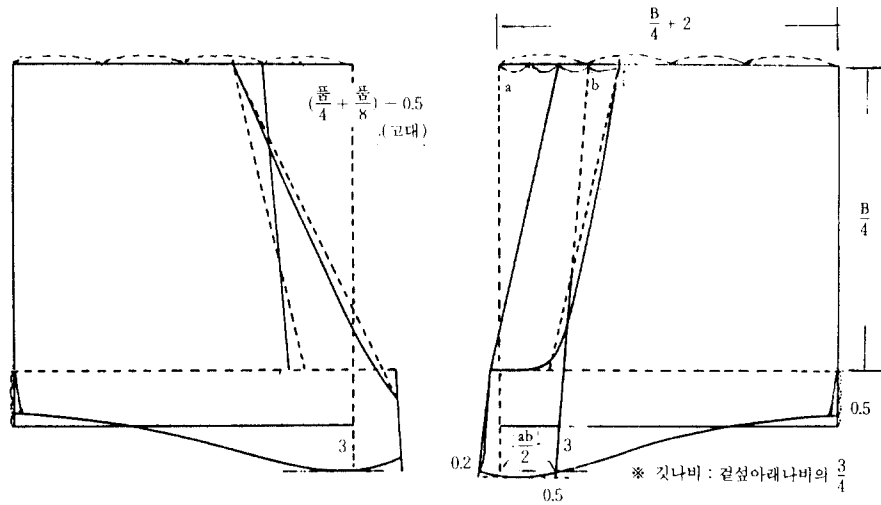
〈그림 7〉 박경자·임순영의 저고리 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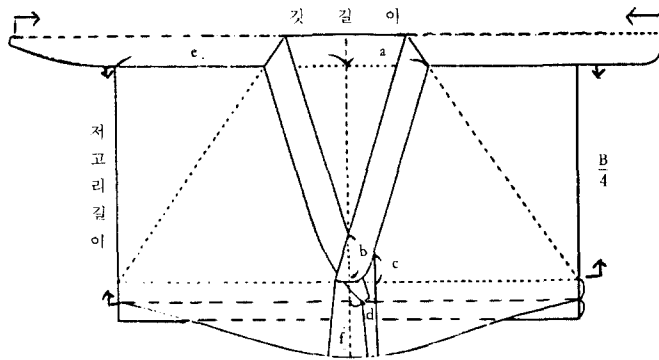
〈그림 8〉 김분옥의 저고리 원형



〈그림 9〉 이주원의 저고리 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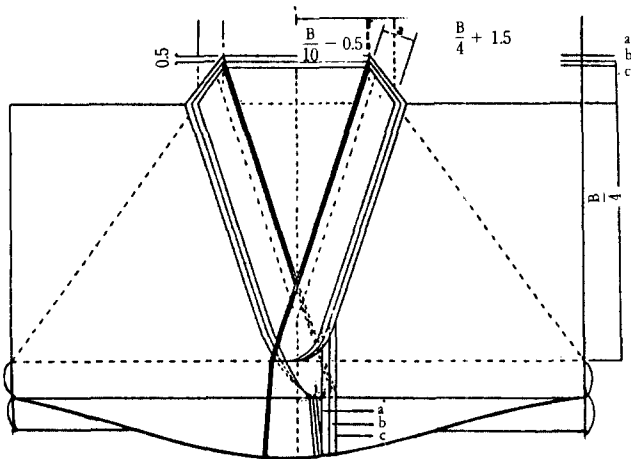


〈그림 10〉 조정희의 저고리 원형



- ※ a :  $\frac{B}{10} - 0.3m$
- b : 갓나비 + 동정나비 + 0.5cm
- c :  $\frac{B}{4}$ 선에서 갓나비만큼
- d : 안섷나비는 저고리 중심선  
우측겅선의  $\frac{1}{2}$
- e :  $\frac{B}{4} + 1.5m$ (폼)
- f : 3m 섷내림

〈그림 11〉 개선된 저고리 제도법(갓나비 3cm를 기준으로 함)



- ※ a : 갓나비 3cm일 때의 겅선과 안섷
- b : 갓나비 3.5cm 일 때
- c : 갓나비 4cm일 때

〈그림 12〉 개선된 저고리 제도법(갓나비를 변화시켰을 때)

〈표 7〉 겹깃길이의 산출식값과 실제길이값의 차

(단위 : cm)

구분	치수 항목	가슴둘레 85cm 일 때			
		겹깃산출식 = 진동	겹깃 산출값	실제 겹깃 길이값	산출값과 실제값과의 차
김분칠	$\frac{B}{4}$		21.25	22.5	1.25
임순영 박경자	$\frac{B}{4}$		21.25	22.2	0.95
김분옥	$\frac{B}{4}$		21.25	22.1	0.85
이주원	$\frac{B}{4}$		21.25	22.5	1.25
조정희	$\frac{B}{4}$		21.25	21.8	0.55

〈표 8〉 저고리 제도상 비합리적 내용과 문제점

항 목	구 분	내 용
참고치수	김분칠	대치수에서 쉰나비치수와 계산상 쉰나비치수의 차이, 깃나비 치수와 겹깃 윗나비 치수 같음.
고대나비와 깃나비의 관계	김분옥	치수의 크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역으로 커짐.
겹깃길이의 산출식 치수와 실제길이 치수와의 차	김분칠	1.25cm
	임순영 박경자	0.95cm
	김분옥	0.85cm
	이주원	1.25cm
	조정희	0.55cm
쉰나비와 깃나비의 관계	김분칠	깃길이가 쉰나비 결정
	김분옥	뒷폼 치수로 쉰나비 계산(쉰나비 고정)
	이주원	치수제시로 고정
	조정희	고대나비가 쉰나비 결정
실제길이와 투영길이의 차	김분옥	앞쳐짐분 2cm
참고치수에 의한 진동과 겹깃길이의 비교	김분칠	진동값을 겹깃길이 값으로 계산
	임순영 박경자	산출식과 산출값과의 차이
	김분옥 이주원 조정희	진동값을 겹깃길이값으로 계산
	안깃나비와 안깃길이의 관계	김분칠
이주원		안깃길이 산출방법 제시 안함. 깃길이 계산시 고대길이를 $\frac{B}{10} - 0.5cm$ 가 아닌 $\frac{B}{10} - 0.5cm$ 제시



적된 비합리적인 문제점들을 상호보완하고 개선하여 새저고리 제도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떤 편향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 합리적으로 개선된 저고리 제도법이 연구되어 원형의 표준화는 물론 개인의복 뿐 아니라 Auto CAD에 의한 제품생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원형연구가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 1) 박경자 외, 한국의상구성, 서울:수학사, p. 7, 1992.
- 2) 김영자, 한복의 황금비 분석에 의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복식 제8호, p. 49, 1984. 12.
- 3) 장문호 저, 복식미학, 서울:장학사, p.84, 1982.
- 4) 장석향, 피복설계에 따른 체형연구의 의의, 한국복식학회, 복식 제6호, p. 27, 1982.
- 5) 임원자·최현숙, 스커트 제작을 위한 원형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5, No. 2, p. 22, 1981.
- 6) 조길수, 성인여자의 의복치수 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0.
- 7) 박혜숙 역, 피복구성학, 서울:경춘사, p. 93, 1987.
- 8) 박혜숙·이명희 저, 서양의복구성(개정판), 수학사, p. 30, 1991.
- 9) 박혜숙 역, 피복구성학, 서울:경춘사, p. 93, 1987.
- 10) 김분철 저, 한복구성학, 서울:교문사, p. 74, 1992.
- 11) 박경자·임순영 저, 한국의상구성, 서울:수학사, p. 160, 1991.
- 12) 김분옥 저, 한복구성, 서울:수학사, p. 66, 1989.
- 13) 이주원 저, 한복구성, 서울:경춘사, p. 92, 1990.
- 14) 조정희 저, 한복, 서울:형설출판사, p. 141.
- 15) 김영자, 한복의 황금비 분석에 의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복식 제8호, p. 49, 1984. 12.
- 16) 김희정, 한복저고리깃의 인간공학적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0, 1985.
- 17) 백금현, 옷깃과 옷깃의 형태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복식 제6호, p. 105, 1982. 12.
- 18) 상동, p. 106.
- 19) 박혜숙 역, 피복구성학(이론편), 서울:경춘사, p. 33, 1987.
- 20) 박혜숙 외, 서양의복구성, 서울:수학사, p. 31, 1991.
- 21) 박혜숙 역, 피복구성학(이론편), 서울:경춘사, p. 121, 1987.
- 22) 산업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체위조사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980. 6.